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6년 1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마태 5,1-12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 MEMO

## 가톨릭 제사

### ◆ 가톨릭 제사의 의미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예를 갖추는 가톨릭 제사는, 전통 예절과 교회 전례를 모두 존중하여 실천하는 것이며, 그 정신도 상호 부합한다.

- 1) 신앙 실천의 의미 : 상례와 함께 우리 전통의 의례인 제례를 통하여 부모 공경과 고인을 기억하고 뿌리 찾기를 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생활과 같은 맥락의 정신을 찾아본다.
- 2) 교육적 의미 :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4 계명의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사회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다. 고인을 위한 미사만 봉헌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 혹 신앙이 깊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부모 공경의 예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어렵게 된다.
- 3) 선교적 의미 : 사회 속에서 교회의 상례가 선교의 큰 역할을 하고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하는 가정생활의 모범이 사회 안에서 모범 가정으로 그 선교에 한몫을 하게 된다.

### ◆ 가톨릭 제사의 구성

가톨릭 제사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양식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전통의 범절을 존중하였으며, 연도와 합치도록 꾸몄다. 제사의 전통 예절 가운데서 미신적인 요소는 온전히 배제하였으며, 실천이 어려운 내용은 현실적으로 좀 더 손쉬운 내용으로 전환하였다. 또 교회 예배의 순서와 합치하도록 구성하여 더욱더 교회 기도의 특성을 갖도록 편집하였다.

### ◆ 가톨릭 제사를 위한 준비 사항

- 1) 마음의 준비 :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돌아가신 선조들을 기억하며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 2) 몸 준비 : 목욕재계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품위와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옷으로 정장을 입는다.
- 3) 제사 상 준비 :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사상을 마련하는 곳은 잘 정돈하고 단정하게 꾸민다. 벽에는 십자고상을 걸고 그 아래에 선조의 영정(사진)을 모신다. 전통의 분위기에 따라 병풍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제사상에는 촛불과 향도 마련한다.

### ◆ 예식 순서

성호경 및 시작 성가 : 1, 27, 29, 번 중에 하나를 부른다.

분향 배례 : 주례자는 술을 드린 다음, 주례자를 포함하여 전체가 두 번 절을 한다.

위령 기도(연도) : 가톨릭 기도서 참조

성서 봉독 : 가정 화목과 성화와 부모 공경, 형제 사랑, 하느님의 자녀 됨을 말하는 다음 구절들 가운데 골라 봉독한다.

- 1) 집회 3,1-16 <부모께 효도하고 공경하여라.>
- 2) 에페소 5,6-20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 3) 1요한 3,14-18 <형제들을 사랑하여라.>
- 4) 요한 15,1-10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 5) 요한 15,11-17 <벚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화답송 : 성가로 대신할 수 있으며, 특히 고인이 평소에 좋았던 성가를 부를 수 있다. - 54, 59, 399, 462번등

주례자 말씀 : 주례자의 인도로 고인을 기리며 가족들이 말씀을 나눈다. 경우에 따라 고인을 위한 개인기도 형식을 펼 수도 있다.

신앙 고백 : 사도신경을 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여 신앙의 형제임을 확인하며, 신앙을 더욱 굳게 한다.

가족들의 기도 : 이어서 가족들이 죽은 부모를 위한 기도, 어른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위한 기도, 모든 이들이 가정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경우에 따라 다음의 기도들 가운데 선택하여 바친다. - 가톨릭 기도서 참조

헌주와 배례 : 가족들이 차례로 술을 드리고 절을 두 번 한다. 명절 제사에서 차례 지내는 선조들이 여럿일 때, 상을 바꾸어 술을 드리고 절을 한다.>

독축 : 선조께 대한 사모, 감사, 용서 청함, 전구와 자손의 새로운 삶의 결의가 담긴 축문을 읽는다. <설 명절에>

† 세상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나이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 부족하나마 상을 차려 조상의 은덕과 유훈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 조상들의 공로와 저희의 정성을 보시어 새해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조상들께는 기쁨의 위로가 되며 저희에게는 새 생활의 힘과 희망이 되도록 축복주소서.

저희 조상들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묵념 : 침묵 중에 선조께 감사드리면서 잘못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새로운 삶의 결심을 한다. 아울러 필요한 은혜에 대해 선조께 전구를 청한다.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 : 모두가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을 바친다.

평화의 인사 : 가정과 가족들 간의 화목과 동기들 간의 우애를 표현하며, 서로 간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일치와 화해와 사랑의 인사를 나눈다. 또한 덕담도 함께 나눌 수 있다.

작별 배례 : 주례자를 비롯하여 전체가 마치는 절을 두 번 한다.

마침 성가 : 성가를 부르고 성호경으로 예식을 마감한다. - 44, 62, 175, 236번등

음복 : 제사상을 물리고 음복하며, 식사를 통해 선조들과 통교하고 가족들 사이의 친교(일치)를 갖는다.

주제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 마태 5장 1-12절 -

이미 세상에서 어렵פות이나마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이들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고자 예수님께서로 모여든다. 그분의 제자들은 더욱 가까이 스승 곁으로 다가간다. 바로 이때 그분은 입을 연다. 이렇게 볼 때 산상설교는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을 향한 외침이다.

- 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재물보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며 마음을 비우고 하느님의 뜻대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을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세상에 만연된 악의 세력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다.
- ③ “**은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가난과 겸손의 정신을 지닌 사람이다.
- ④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 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적이고 겸손한 순명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다.
- ⑥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이기심 없는 좋은 상호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다.
- ⑦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뜻을 실제로 추구하다가 그 결과로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행복을 소유가 아니라 신앙인의 성실성에 두심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생활의 가치관을 뒤엎으신다.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언제라도 그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비운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는 자주 보고 싶다. 그들을 늘 가까이 두고 싶다.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그렇다. 좋은 사람일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다가감을 위해서는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거리는 물론 마음의 거리를 말한다. 마음의 거리가 없다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다. 참된 행복은 이렇게 거리를 좁히는 데서, 다가가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사람과 사람의 거리, 사람과 하느님의 거리가 좁아질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닫힌 마음들이 열림에서 오는 행복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데서 오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 열고 다가감에서 비롯되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열고 너에게로,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나눔> : 2006년, 나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